

세월호 뉴스 노출을 통한 간접 외상의 심리적 영향*

이 흥 표

대구사이버대학교

최 윤 경[†]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이 재 호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이 흥 석

본 연구는 재난 뉴스를 통한 간접 외상 노출의 심리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참가자들($N=439$)은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지 평균 $68.11(\pm 18.47)$ 일이 경과한 후 일련의 자기 보고식 질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여기에는 외상후 위기 체크리스트(Posttraumatic Risk Checklist: PRC), 사건 충격 척도(Impact of Event Scale-Revised: IES-R) 및 다차원적 죽음불안 척도(Multidimensional Fear of Death Scale: MFODS)가 포함되었다. 재난 뉴스노출과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의 관계에서 죽음불안, 외상당시 및 외상후 위기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죽음불안, 외상 당시 및 외상 후 위기는 초기 뉴스노출과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재난 직후의 뉴스노출이 죽음불안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외상당시 및 외상후 위기를 유발하며, 이러한 위기 요인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미래 연구를 위한 제안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간접외상, 뉴스 노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죽음불안, 세월호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3A2043448)

† 교신저자 : 최윤경,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704-7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번지
Tel : 053-580-5405, Fax : 053-580-5313, E-mail : ykchoi@kmu.ac.kr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건은 온 국민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초래한 국가적 재난이었다. 특히 일부 언론의 선정적이고 비윤리적인 보도 행태와 편파성, 무책임성은 많은 이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미디어오늘, 2015). 이처럼 잘못된 재난 보도가 초래하는 부정적인 파급 효과는 미디어의 영향력만큼이나 막대할 수 있다. 서구에서는 911 테러 이후 TV 방송 노출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의 단기 증상의 관련성이 밝혀지면서 미디어를 통한 외상의 간접 노출이 직접 노출과 유사하게 외상적 인지, 그리고 간접 노출과 관련된 PTSD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Neria & Sullivan, 2011).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 최신판인 DSM-5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는 PTSD를 유발할 수 있는 외상 사건에 단순한 미디어 노출을 포함하지 않는다. 예컨대, PTSD의 진단기준 A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식으로 죽음, 심각한 상해 또는 성폭력을 실제로 경험하거나 위협을 느낀 경우로, 외상 사건의 직접 경험(A1), 타인에게 일어난 외상 사건의 직접 목격(A2), 외상 사건이 가까운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A3), 그리고 외상 사건의 혐오스러운 세부사항에 대해 반복적인 또는 극단적인 노출(A4)을 들고 있다. 그 중 A4 기준은 직업과 관련되지 않는 한, 전자 미디어, TV, 영화 또는 사진을 통한 노출은 외상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미디어를 통해 충격적인 뉴스나 영화를 접한다고 해서 PTSD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재난 뉴스의 시청과 PTSD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911 테러 이후 세계무역센터 빌딩에서 사람이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장면에 대한 반복 시청이 PTSD와 관련이 있었고(Ahern et al., 2002) 911 관련 TV를 가장 적게 본 경우보다 가장 많이 본 경우에 PTSD 유발 가능성이 66% 더 높았다(Ahern, Galea, Resnick, & Vlahov, 2004). Silver, Holman, Andersen, Poulin, McIntosh 및 Gil-Rivas(2013)의 연구에 따르면, 초기 911 테러 및 이라크전과 관련된 TV 노출 및 노출의 빈도가 2-3년 후 PTSD 증상의 증가를 예측하였고 하루 4시간 이상의 911 관련 TV 방송에 노출과 누적된 급성 스트레스가 2-3년 후 신체적 질병의 발생을 예측하였다. Bernstein, Ahern, Tracy, Boscarino, Vlahov 및 Galea(2007)은 뉴욕시의 코호트 자료를 분석해서 911 테러 1주기 관련 TV 프로그램을 12시간 이상 시청하는 것이 PTSD가 새로이 발생할 가능성과 관련이 있고 TV 시청 시간이 길수록 PTSD 가능성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Bernstein 등은 이에 근거하여 TV를 통한 재난 시청이 일반인의 정신병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간접 '노출'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재난 뉴스노출이 일반 시민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다수 존재하는 가운데, 세월호 사건은 미디어에 의한 간접 노출에 대한 국내 연구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세월호 사건 발생 후 1년간 '세월호' 키워드로 올라온 트위터와 블로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중앙일보, 4, 13)에 따르면, 초기 열흘간의 구조기에는 불안과 공포가 지배적이고 그 이후에는 시간 경과에 따라 분노와 원망(실종자 수색기), 수치(정체기), 위로(세월호 특별법 단식농성 이후), 응원(특별법 통과 이후), 힘듦(특별법 통과 이후)

등의 정서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시간 경과에 따라 사건 특성의 변화, 뉴스 보도의 내용과 선정성이 달라질 수 있고, 초기의 큰 충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약화될 수 있으므로(Cohn, Mehl, & Pennebaker, 2004; DeRoma, Saylor, Swickert, Sinisi, Marable, & Vickery, 2003; Rimé, Páez, Basabe, & Martínez, 2010), 뉴스 노출 또한 시기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재난 뉴스 보도의 부정적 결과 이면에는 지각된 위협과 죽음불안과 같은 심리적 기제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재난 뉴스를 통해 다른 사람의 사망 소식을 접할 경우, 자기 자신이나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도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죽음에 대한 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 죽음불안이란 죽음에 대한 정서적 반응으로(Neimeyer, 1998), 만성 의학적 상태와 신체 증상, 정서적 고통과 높은 상관을 보인다(Chung, Chung, & Easthope, 2000; Chung, Werrett, Easthope, Farmer, & Chung, 2002).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 이별, 통제력 상실, 무의미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할 정도로 강력하며, 죽음불안은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의 발생 및 유지에 내재된 기본적인 공포로 간주되어 왔다(Iverach, Menzies & Menzies, 2014).

죽음불안은 다양한 재난의 생존자들에게 PTSD 증상의 심각도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Iverach et al., 2014) 이는 불안 완충 기제의 붕괴(anxiety-buffering disruption)로 설명된다(Pyszczynski & Kesebir, 2011). 즉, 자기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포함한 외상적 사건은 세상이 안전하고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신념을 위협하는데, 이런 신념이 위협적인 사건에 대한 보호 기능

을 상실하게 되면 불안 완충 기제가 심각하게 붕괴되고, 결국 외상후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PTSD 증상이 심각할 경우 죽음불안을 더 많이 경험하고 PTSD 증상을 적게 경험한 경우 죽음 관련 사고의 억제력을 더 많이 보인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Chatard, Pyszczynski, Arndt, Selimbegović, Konan, & Van der Linden, 2012).

죽음불안은 직접 외상뿐 아니라 간접 외상에서도 중요한 변인일 수 있다. Chung 등(2000)은 항공기 사고에 노출된 지역사회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이 죽음불안과 관련이 있으며, 사고 지역 거주자들이 침습적 사고와 회피행동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외상에 대한 간접 노출이 죽음불안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PTSD의 발병 및 증상의 심각도는 외상 사건 발생 당시뿐 아니라 그 이후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혜선과 안현의(2008)는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여 이후 PTSD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위협 요인들로 구성된 외상후 위기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에 따르면, 외상 당시의 위협요인에는 생명의 위협과 해리반응 같은 인지적 반응, 부정적 정서 반응, 신체적 과각성이 포함되고, 외상 이후의 위협요인에는 부정적 정서와 더불어, 외상과 관련된 부정적 평가 및 신념, 부적응적 대처 전략, 지각된 사건의 심각성, 낮은 사회적 지지가 포함되었다. 외상 사건 자체의 특성만큼이나 사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지각이 중요한 요인임을 감안할 때(Cukor et al., 2011) 이러한 위협요인은 직접 외상뿐 아니라 간접 외상에서도 중요하

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혜선과 안현의(2008)에 근거하여 외상 당시의 위협요인을 외상 당시 위기로, 외상 이후의 위협요인을 외상후 위기로 정의하여 간접 외상 이후의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과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미디어를 통한 간접 외상이 침습이나 회피와 같은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죽음불안과 관련된 불안 완충 기제의 붕괴가 작용할 것이라 가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월호 뉴스 노출을 통한 간접 외상의 영향을 검증하는 것으로, 세월호 사건 이후 뉴스를 접한 시간, 죽음불안, 외상 당시 및 외상후 위기 요인을 거쳐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에 이르는 매개 경로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직접 외상에서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위협에 직면하지만 간접 외상에서는 타인의 외상이 죽음에 대한 단서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죽음불안을 단일 차원이 아닌, 다차원적인 구성개념으로 개념화할 필요가 있으며(이홍표, 이홍석, 고효진, 김교현, 2005; Hoelter, 1979), 세월호 사건의 경우, 뉴스에 보도된 사건의 특성이나 유가족들의 정서 반응 등으로 미루어 보아,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두려움, 자기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았다. 이에 세월호 사건 직후 관련 뉴스에 많이 노출될수록 죽음불안 및 외상 당시의 위기 반응, 그리고 이후에 지속적인 뉴스 노출을 더 많이 경험하고 그에 따라 외상후 위기도 더 많이 경험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한편, 죽음불안은 부정적 정서와 신체적 증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이정인, 2012; Thienman et al., 2015), 신체적으로 도주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죽음불안은 인지적, 정서적 도피를 유발할 수 있고 이인증이나 정서적 마비와 같은 해리 증상은 그런 도피의 수단이 될 수 있다(Herman, 1997; Kosloff et al., 2006). 이에 세월호 사건 당시 뉴스 노출이 죽음불안을 거쳐 외상 당시 위기를 유발하는 간접 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에 더해, 죽음불안과 같은 실존적인 공포가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심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Maxfield, John 및 Pyszczynski(2014)에 따르면, 외상적 사건은 안전하고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세상에 대한 가정을 위협함으로써 세계관에 도전하고, 불안 완충 기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 따라서 죽음불안이 외상후 위기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외상 당시 위기 반응을 매개로 하여 외상후 위기에 영향을 주는 간접 효과가 있을 것이고, 외상 당시 뉴스 노출은 이후 뉴스 노출을 통해 외상후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 가정하였다.

죽음불안과 PTSD 증상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Charard et al., 2012; Chung et al., 2000, 2002), 죽음불안은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에 직접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외상 당시 및 외상후 위기를 거쳐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마지막으로, 뉴스 시청만으로 PTSD를 유발할 수 없지만(APA, 2013; Neria & Sullivan, 2011) 외상 당시 초기의 뉴스 시청은 이후의 뉴스 시청, 죽음불안, 외상 당시 및 외상후 위기를 거쳐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하였다. 아울러, 외상후 시간 경과에 따라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이 감소한다는 선행 연구(Breslau, 2009)를 토대로 본 연구의 참가자마다 설문조사 시점의 차이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적인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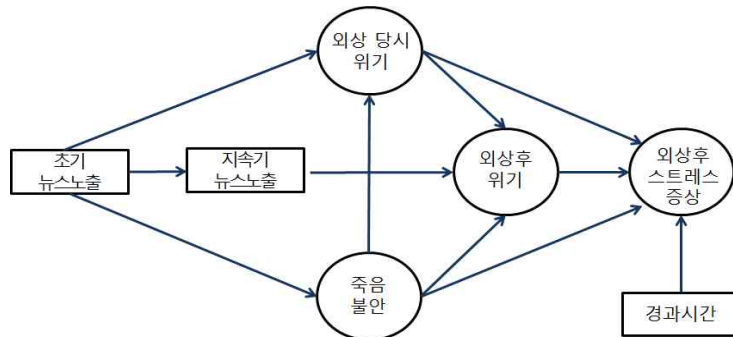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은 그림 1과 같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결정한 만 18세 이상의 성인 481명 중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42명의 자료를 제외한 439명(남 147명, 여 29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가자들은 연구자들에 의해 편의 표집되었으며, 연구 참여 동의서와 더불어, 일련의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이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었다. 성별에 따른 만 연령, 결혼상태, 동거상태, 자녀수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성별에 따른 거주지역의 분포에서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chi^2(4, N=436)=18.86, p<.001$.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 참가자가 많았지만 서울 지역에서 여성 참가자가 많은 분포를 보였다.

측정도구

본 연구는 대규모 조사의 일부로, 참가자들

의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뉴스 노출 경로와 시간, 외상후 위기체크리스트, 사건충격척도, 다차원적 죽음불안척도의 결과만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뉴스 노출 관련 질문지

뉴스 노출 관련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문지를 작성해서 사용하였다. 주로 뉴스를 접하는 경로와 이전에 비해 세월호 사건 전후 뉴스 시청의 정도는 선택형으로 제시하였고, 세월호 사건에 대한 충격도는 0점 '전혀 충격적이지 않았다'에서 4점 '매우 충격적이다'의 Likert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하루 평균 세월호 관련 뉴스를 접한 시간을 측정하는 문항은 사건 직후부터 1주일 까지를 초기로, 사건 1주일 후부터 설문 시점 까지를 지속기로 구분하였다. 뉴스노출 시간은 각 시기별로 8개의 구간을 나누어 선택하도록 하였다. 응답은 순서척도이지만, 연속변인에 적용할 수 있는 통계분석을 위해 해당범위의 최소값(분 단위)으로 변환시켜 재코딩하여 사용하였다.¹⁾ 예를 들어, 10분 이하는 0분

1) 재코딩된 자료는 원래 시간변인이며, 오히려 보편적인 Likert 척도보다 연속변인에 더 유사하다. 비록 재코딩 변인이 순서변인일지라도, 순서척도

표 1. 성별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

		남성 (n=147)	여성 (n=292)	전체 (N=439)	χ^2 또는 t
만 연령		34.45 (±12.91)	32.85 (±11.30)	33.39 (±11.87)	1.27
결혼상태	기혼	72	123	195	2.89
	미혼	72	166	238	
	기타	3	3	6	
동거상태	독거	19	52	71	1.72
	가족과 동거	127	238	365	
	무응답	1	2	3	
자녀수	0명	13	14	27	.86
	1명	12	25	37	
	2명	39	70	109	
	3명이상	10	16	26	
	무응답	0	1	1	
거주 지역	서울	20	89	109	18.86***
	대구	48	65	113	
	인천·경기	35	48	83	
	부산·울산·경상	37	80	117	
	충청·강원	6	8	14	
	무응답	1	2	3	

*** $p < .001$.

주. 자녀수의 경우, 미혼(n=238)과 무응답(n=1)을 제외한 수치이며, 각 통계치는 무응답 사례를 제외하고 분석한 수치임.

으로, 30분-1시간은 30분으로, 1-2시간은 60분으로, 7시간 이상은 420분으로 재코딩하였고, 뉴스노출시간의 범위는 최소 0분~최대 420분이었다.

경과일은 세월호 발생 후 설문작성까지를 일수로 계산한 값으로, 참가자들은 세월호 사

에 대한 모수통계분석이 가능하다(예: Norman, 2010).

건 발생 후 최소 40일~최대 134일 사이에, 평균 68.11(±18.47)일이 경과한 시점에 설문을 작성하였다.

외상후 위기 체크리스트

이 척도(Post trauma Risk Checklist: PRC)는 외상적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이내에 외상을 경험한 사람의 PTSD 발병 및 심각성에 영향

을 미치는 여러 위험 요인들을 다양한 영역에서 점검하여 이후 PTSD로 진전될 위험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서 주혜선과 안현의(2008)가 개발한 것이다. 이 척도는 총 53문항으로, 외상사건 당시와 외상후의 위험요인들로 구분되어 있고, 각 문항에 대해 예/아니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이 심각하고 향후 PTSD로 진전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전체 PRC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91이었고, 외상 당시 위기반응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84(인지적 반응 .64, 정서적 반응 .76, 신체적 반응 .73)이었고, 외상후 위기 반응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90(외상과 연관된 인지적 평가 .64, 자신, 타인, 세상에 대한 신념 .79, 정서적 반응 .60, 대처전략 .67, 외상 심각성 .66, 사회적 지지 .76)이었다.

사건 충격 척도 수정판

이 척도(Impact of Event Scale-Revised: IES-R)는 Weiss와 Marmar(1997)가 외상과 관련된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의 사건 충격 척도를 수정한 것으로, 국내에서 은현정 등(2005)이 타당화하였다. 이 척도는 총 22문항으로, 외상과 관련된 과각성, 회피, 침습 및 수면장애와 정서적 마비/해리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0~4점 Likert 척도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PTSD 증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 사건의 간접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IES-R-K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IES-R-K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96(과각성 .88, 회피 .92, 침습 .90, 수면장애와 정서적 마비/해리 .75)이었다.

다차원적 죽음불안 척도

이 척도는 Hoelster(1979)가 개발한 MFODS (Multidimensional Fear of Death Scale)를 국내에서 이흥표 등(2005)이 타당화한 것으로,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두려움(6문항), 신체 기증에 대한 거부감(3문항), 중요한 타인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6문항), 미지(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4문항), 일찍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3문항), 죽음 이후의 신체에 대한 두려움(4문항), 시체에 대한 두려움(3문항)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총 29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해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렇다 혹은 아니다로 응답하도록 변형하여 사용하였고, 세월호 사건과 관련이 있는 3개의 하위척도, 즉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두려움, 중요한 타인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일찍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만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MFODS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두려움 .82, 중요한 타인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61, 일찍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87이었다.

통계분석

주요 인구통계학적 및 뉴스 노출 관련 변인에 대해 t 검정 또는 카이제곱 검정(뉴스경로의 경우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모형에 포함된 모든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를 산출하고 변인들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 재난 뉴스노출 시간, 죽음불안, 외상당시 및 외상후 위기, 경과 시간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χ^2 와 RMSEA (Root Mean Error of Approximation), NFI(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 Lewis Index)를 통해 검증하였다. RMSEA는 절대적 적합지수로 .05이하일 때 매우 좋은 적합도, .08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10보다 크면 나쁜 적합도로 해석하며 상대적 지수인 TLI, NFI, CFI는 .90이 넘으면 양호한 적합도로 해석한다(홍세희, 2000). 본 연구에서는 간접효과의 유의도 검증을 위해서 부트스트랩(bootstrap) 절차를 적용하였고, SPSS 23.0과 AMOS 23.0을 사용해서 이상의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세월호 뉴스 노출

주요 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연구 참가자들의 뉴스 노출 관련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인터넷을 통한 뉴스 노출이 가장 많았고(56.03%), 다음으로 TV 뉴스(38.95%), SNS(8.88%), 종이신문(8.66%), 라디오 뉴스(1.59%)의 순이었다. 인터넷에서도 동영상 재상이 가능하고 두 번째 경로가 TV 뉴

표 2. 성별에 따른 뉴스 노출 관련 특성

	남성 (n=147)	여성 (n=292)	전체 (N=439)	χ^2 또는 t
뉴스 경로 (*다중응답)				
인터넷	79	167	246	6.93
TV뉴스	57	114	171	
SNS	12	27	39	
종이신문	17	21	38	
라디오뉴스	5	2	7	
무응답	1	2	3	
뉴스노출에서의 변화				
> 평상시	62	165	227	8.11*
= 평상시	74	112	186	
< 평상시	11	15	26	
뉴스노출 시간(분)				
초기 (사건직후 ~ 1주일)	88.50(±104.86)	129.25(±129.90)	115.60(±123.47)	-3.54***
지속기 (1주일후 ~ 현재)	26.33(± 61.03)	39.90(± 93.09)	35.35(± 83.91)	-1.83
충격도 평정 (0-4점)	2.86(± 1.10)	3.23(± .99)	3.12(± 1.04)	-3.76***
경과일 (사건발생 ~ 설문시점)	71.14(±22.27)	66.05(±16.05)	98.11(±18.47)	-2.21*

주1. * $p < .05$, *** $p < .001$.

주2. 각 통계치는 무응답 사례를 제외하고 분석한 수치임.

스임을 감안할 때 시청각을 통한 뉴스 노출이 상대적으로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가자들은 세월호 사건 이후 평소보다 뉴스를 더 많이 보았다(51.71%), 평소와 변화 없었다(42.37%), 평소보다 뉴스를 적게 보았다(5.92%)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여기에는 성차가 유의했는데, $\chi^2(2, N=468)=8.11, p<.05$, 여성이 평상시보다 뉴스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시사되었다. 성별에 따른 하루 평균 뉴스 노출 시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세월호 사건 초기(즉, 사건 발생 후 1주일간)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좀 더 긴 시간 뉴스에 노출되었으나, $t(437)=-3.54, p<.001$, 일주일 이후 지속기에는 성차가 유의하지 않았다, $t(437)=-1.83, p>.05$.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충격 정도를 0점(전혀 충격적이지 않다)~4점(매우 충격적이다)으로 평정하도록 했을 때 여성은 남성에 비해 충격도가 더 높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t(437)=-3.76, p<.001$.

예비 분석

표 3에는 주요 측정변인의 기술통계와 상관계수를 제시하였다. 세월호 사건후 경과일은 IES-R-K의 하위척도, 즉 과각성, 회피, 침습 및 수면장애와 정서적 마비/해리와 유의한 부적 상관($p<.01$)을 나타내었다. 즉, 시간이 경과할수록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FODS의 하위척도 중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두려움은 외상당시 및 외상후 위기,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과 .14($p<.01$)에서 .44($p<.001$)에 이르는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은 외상당시 및 외상후 위기의 하위척도들과 .21($p<.001$)에서 .51($p<.001$)에 이르는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

었다.

매개모형 검증

사건 당시 뉴스노출시간과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간의 관계에서 일주일 이후 뉴스노출시간, 죽음불안, 외상당시 위기, 외상후 위기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측정모형

각 잠재변수들의 측정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각 척도의 하위척도를 지표변수로 사용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죽음불안을 제외하고 외상 당시 위기, 외상후 위기 및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의 경우, TLI, NFI, CFI가 권장지수인 .90 이상에 조금 미치지 못하였지만 RMSEA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고, 모든 측정변수의 모든 요인부하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모든 $p<.001$). 따라서 외상 당시 및 외상후 위기, 죽음불안,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이 각 측정변수들에 의해 잘 측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조모형

초기 뉴스노출과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의 관계에서 지속기 뉴스노출, 죽음불안, 외상당시 위기, 외상후 위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chi^2(df=144)=358.31$ 였으며,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TLI, NFI, CFI는 각각 .93, .90, .94,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는 .06(90% 신뢰구간

표 3. 측정변인의 기술 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N=439)

경과일	뉴스노출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	1																		
2	-.10*	1																	
3	-.03	.35**	1																
4	-.07	.14**	.04	1															
5	-.04	.13**	.01	.58**	1														
6	-.10*	.22**	.09*	.54**	.41**	1													
7	-.06	.11*	.05	.33**	.20**	.37**	1												
8	-.04	.12*	.01	.35**	.40**	.28**	.42**	1											
9	-.10*	.15**	.07	.36**	.43**	.37**	.34**	.55**	1										
10	-.08	.17**	.06	.32**	.32**	.37**	.53**	.55**	.57**	1									
11	-.08	.16**	.06	.23**	.21**	.31**	.31**	.39**	.47**	.47**	1								
12	-.07	.01	.06	.12*	.11*	.26**	.35**	.33**	.26**	.35**	.30**	1							
13	-.03	.08	.06	.24**	.26**	.25**	.29**	.44**	.30**	.30**	.14**	.16**	1						
14	-.09	.12*	.03	.19**	.29**	.19**	.18**	.25**	.28**	.27**	.16**	.07	.29**	1					
15	-.04	.10*	.02	.16**	.19**	.12**	.12*	.29**	.23**	.23**	.14**	.08	.32**	.38**	1				
16	-.18**	.12*	.07	.33**	.26**	.47**	.43**	.40**	.43**	.41**	.40**	.36**	.31**	.12*	.17**	1			
17	-.23**	.10*	.11*	.33**	.28**	.41**	.36**	.39**	.46**	.44**	.35**	.30**	.23**	.17**	.13**	.76**	1		
18	-.23**	.19**	.11*	.39**	.35**	.45**	.39**	.49**	.51**	.46**	.43**	.30**	.33**	.22**	.19**	.82**	.77**	1	
19	-.17**	.14**	.06	.27**	.21**	.42**	.38**	.38**	.43**	.39**	.38**	.29**	.27**	.11*	.13**	.79**	.73**	.74**	1
M	68.11	115.60	35.35	1.73	2.49	1.19	1.10	2.81	1.28	1.82	0.43	0.22	1.44	3.65	1.22	2.78	4.29	3.90	2.50
SD	18.47	123.47	83.91	1.26	1.44	1.56	1.36	2.47	1.13	1.62	0.80	0.73	1.84	1.51	1.31	3.98	5.20	4.25	3.07

주1. * $p < .05$, ** $p < .01$, *** $p < .001$.

주2. 1=경과일, 2=초기 뉴스노출, 3=지속기 뉴스노출, 4=외상당시 인지적 반응, 5=외상당시 정서적 반응, 6=외상당시 신체적 반응, 7=외상후 인지적 평가, 8=외상후 신념, 9=외상후 정서적 반응, 10=외상후 대처전략, 11=외상실각상, 12=외상후 낮은 사회적 지지, 13=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두려움, 14=타인 상실에 대한 두려움, 15=조기사망에 대한 두려움, 16=과각성, 17=회피, 18=침습, 19=수면장애와 마비/해리.

표 4. 잠재변수들의 측정모형 적합도 지수 (N=439)

잠재변수	χ^2	df	TLI	NFI	CFI	RMSEA
외상 당시 위기	382.64	102	.810	.794	.839	.079 (.071-.088)
외상후 위기	586.66	175	.833	.815	.861	.073 (.067-.080)
죽음불안	192.64	87	.941	.915	.951	.053 (.043-.063)
외상후 스트레스	959.12	204	.875	.864	.889	.092 (.086-.098)

표 5. 연구모형 적합도 지수 (N=439)

	χ^2	df	TLI	NFI	CFI	RMSEA
연구모형	358.31	144	.93	.90	.94	.06 (.05-.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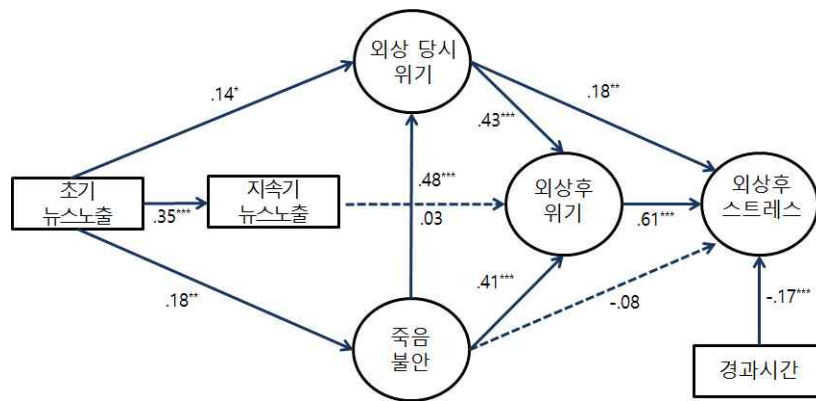
.05-.07)으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기 뉴스노출은 죽음불안($\beta=.18, p<.01$), 외상 당시 위기($\beta=.14, p<.05$), 지속기 뉴스노출($\beta=.35, p<.001$)과의 경로가 유의하였고, 죽음불안은 외상 당시 위기($\beta=.48, p<.001$) 및 외상후 위기($\beta=.41, p<.001$)와의 경로가 유의하였다. 또한 외상 당시 위기는 외상후 위기($\beta=.43, p<.001$), 외상후 스트레스($\beta=.18, p<.01$)와 유의한 경로계수를 나타내었으며, 외상후 위기와 외상후 스트레

스 간의 경로($\beta=.61, p<.001$)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속기 뉴스 노출과 외상후 위기 간의 경로($\beta=.03, p>.05$)와 죽음불안과 외상후 스트레스의 경로($\beta=-.08, p>.05$)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랩 절차를 사용해서 직·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함으로써 변인들 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초



* $p<.05$, ** $p<.01$, *** $p<.001$.

그림 2. 연구 모형의 경로도

표 6. 주요 변인들의 직·간접 효과

경로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초기 뉴스노출	→ 죽음불안	.18**	-	.18*
초기 뉴스노출	→ 외상당시 위기	.14*	.09**(.04~ .15)	.22*
초기 뉴스노출	→ 지속기 뉴스노출	.35***	-	.35**
초기 뉴스노출	→ 외상후 위기	-	.18* (.08~ .26)	.18*
초기 뉴스노출	→ 외상후 스트레스	-	.14* (.07~ .21)	.14*
지속기 뉴스노출	→ 외상후 위기	.03	-	.03
지속기 뉴스노출	→ 외상후 스트레스	-	.02 (-.03~ .07)	.02
죽음불안	→ 외상당시 위기	.48***	-	.48**
죽음불안	→ 외상후 위기	.41***	.21**(.14~ .33)	.62**
죽음불안	→ 외상후 스트레스	-.08	.47**(.37~ .59)	.39*
외상당시 위기	→ 외상후 위기	.43***	-	.43*
외상당시 위기	→ 외상후 스트레스	.18**	.27**(.16~ .43)	.45*
외상후 위기	→ 외상후 스트레스	.61***	-	.61**
경과시간	→ 외상후 스트레스	-.17***	-	-.17**

주. () 신뢰구간, * $p < .05$, ** $p < .01$.

기 지속기 뉴스노출이 외상후 위기에 미치는 직접 효과와 총효과, 죽음불안이 외상후 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 효과, 그리고 지속기 뉴스노출이 외상후 스트레스에 미치는 간접 효과와 총 효과를 제외한 모든 직·간접 효과 및 총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죽음불안은 초기 뉴스노출과 외상 당시 위기의 관계를, 죽음불안과 외상 당시 위기는 초기 뉴스노출과 외상후 위기의 관계를, 죽음불안과 외상 당시 및 외상후 위기는 초기 뉴스노출과 외상후 스트레스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외상 당시 위기는 죽음불안과 외상후 위기의 관계를, 외상 당시 위기와 외상후 위기는 죽음불안과 외상후 스트레스의 관계를, 그리

고 외상후 위기는 외상 당시 위기와 외상후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세월호 사건과 같은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당시 뉴스 노출이 이를 접한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스트레스 반응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사회적 재난의 경우, 일반인들은 뉴스 보도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알게 될 수밖에 없으나, 이러한 보도가 지나치게 선정적일 경우 뉴스를 접한 이들은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하리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간접 외상의 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재난 뉴스를 통한 간접 외상 노출이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시도되었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뉴스노출의 특성을 살펴보면, 참가자의 과반수 이상은 평상시보다 뉴스를 더 많이 보았고, 주로 인터넷과 TV를 통해 뉴스를 접하였다고 한다. 참가자들은 초기 일주일 동안에는 하루에 약 2시간가량 세월호 뉴스에 노출되었으나, 일주일 이후에는 하루 35분가량으로 뉴스노출 시간이 감소하였다. 지속기 뉴스노출의 성차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초기에는 여성의 뉴스 노출시간이 유의하게 더 길었고, 세월호 사건에 의한 충격의 정도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재난의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Wayment, 2004), 남성에 비해 PTSD의 유병률이 2배 정도 높고, 이러한 성차는 여성이 경험하기 쉬운 외상 유형을 통제된 후에도 유지된 바 있었다(Tolin & Foa, 2006). 본 연구에서도 간접 외상에 대한 여성의 취약성이 암시되나, 남성보다 높은 여성의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이 여성의 취약성 때문인지, 아니면 재난 뉴스를 통해 간접외상에 더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초기 및 지속기 뉴스노출 시간을 공변인으로 통제된 후, 성차를 추가로 분석해본 결과, IES-R-K에서는 성차가 사라졌으나 PRC와 MFODS에서 성차가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처럼 측정도구에 따라 결과가 혼재되어 있어 결론을 내리기 어렵지만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선정적인 뉴스에 과다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세월호 뉴스노출 시간이 길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월호 사건 발생 후 첫 일주일간의 뉴스노출이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hern 등(2002, 2004)과 Silver 등(2013)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월호 사건 당시 뉴스에 노출된 집단은 강한 부정적 정서와 더불어, 생명의 위협, 중요한 타인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비롯한 죽음불안, 신체 과각성과 침습을 더 많이 경험하고, 부정적인 인지와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Silver 등(2013)의 종단 연구에 따르면, 911 발생 직후 TV 노출은 1주기 TV 노출과 $r=.27(p<.001)$ 의 상관을 보였고, 911 직후 및 1주기 TV 노출이 911 사건 2-3년 후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의 유의한 예측요인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매개모형 검증에서 지속기 뉴스노출은 초기 뉴스노출과 관련이 있었을 뿐, 외상후 위기에 미치는 직접 효과와 외상후 스트레스에 미치는 간접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의 뉴스노출에 의한 정서적 충격의 영향이 매우 강력했던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이며, 대규모 참가 이후 뒤따르는 예방 및 개입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Bernstein et al., 2007). 즉, 재난 발생 직후의 뉴스노출이 이후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에 침착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뉴스를 보도하고 취약한 사람들에게 뉴스노출을 제한하는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시간의 경과에 따라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와 유사하게, DeRoma, 등(2003)은 911 테러 이후 첫 24시간에서 이틀까지 PTSD 증상이 유

의하게 감소하고 PTSD 증상과 과거의 외상 간의 유의한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회적 재난의 경우, 약 2개월 정도가 경과하면 대부분 회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Rimé et al., 2010). 본 연구에서 설문은 세월호 사건 이후 평균 68일가량(최소 40일~최대 134일) 경과한 시점에 실시되었는데, PRC 기준(주혜선, 안현의, 2008)에 따르면, 참가자 중 대부분(68.1%)이 저위기 수준에 해당되었고, 위기수준은 26.0%, 고위기 수준은 5.9%이었다. PRC의 응답방식이 '그렇다/아니다' 방식의 체크리스트이고 향후 PTSD로 진행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평가하기는 하지만 이 자체만으로 PTSD 진단과 연결하기는 어렵다. 유사하게, IES-R-K의 분류 기준(은헌정 등, 2005)에 따라 참가자를 분류하면, 대다수(78.8%)가 정상 범위에 해당되었고, 13.7%가 경도/중등도 수준, 6.6%가 심각한 수준의 PTSD 증상을 나타내었고, 극심한 수준은 0.9%에 불과하였다. 물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전문가에 의한 구조화된 면접이 필요하겠지만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의 증가가 곧 PTSD의 임상적 진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월호 사건의 경우, 설문 시점에도 사건이 종료되지 않고 이차, 삼차 외상이 진행 중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외상후 스트레스가 아닌 지속적인 스트레스 반응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의 감소가 단순한 시간 경과 효과인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뉴스 노출에 따른 습관화 때문인지, 아니면 개인 또는 지역사회 회복탄력성의 반영인지는 추후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뉴스노출 이후 죽음불안이 이후의 위기 반응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난은 인생이 얼마나 짧고 유한한 지를 깨닫도록 하고, 이는 죽음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Chung et al., 2000). 본 연구는 재난을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뉴스를 통해 이를 지켜본 사람들도 죽음불안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죽어가는 과정이나 중요한 타인의 상실, 조기 사망에 대한 두려움은 외상 당시 및 외상후 위기 반응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과 정적 상관성이 있었다. 이는 Chung 등(2000)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죽음불안이 다양한 종류의 불안과 공포증에 내재하는 기본적인 불안이라는 가설(Becker, 1973)과도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다섯째, PTSD의 위험요인들로 구성된 외상 당시 및 외상후 위기(주혜선, 안현의, 2008)는 직접 외상뿐 아니라, 뉴스노출과 같은 간접 외상에서도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었다. 상관 분석에서 초기 뉴스노출은 낮은 사회적 지지를 제외한, 외상당시 및 외상후 위기의 하위요인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성이 있었던 반면, 지속기 뉴스노출은 신체적 반응과 경미한 상관성이 있었을 뿐, 다른 하위요인들과 상관성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초기 뉴스노출의 강력한 효과를 시사하는 한편, 미디어에 의한 간접 외상이 직접 외상만큼 강력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외상 당시 및 외상후 위기 요인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는 급성기부터 적극적인 예방 및 개입 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세월호 뉴스노출과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간의 관계에서 죽음불안, 외상 당시 및 외상후 위기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직접 외상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데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뉴스노출과 같은 간접 외상이 어떻게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하고자 한다.

간접 외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는 몇 가지 심리적 기제가 관여할 수 있다. 첫째는 뉴스의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뉴스, 특히 생생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뉴스는 정서적 각성과 더불어, 사건 자체와 피해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뉴스에 노출될 경우, 그것에 몰두하고 침습적 사고를 경험하고 애도의 특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으며, 뉴스 장면이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유사한 외상의 기억 회상에 촉발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Ahern et al., 2004). 뉴스의 선정적인 보도 행태는 강한 정서적 각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정서적 반응이 TV와 정신병리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Ahern et al., 2004).

둘째, 정서 전염(emotional contagion)은 세월호 생존자 및 (유)가족의 정서가 뉴스에 노출된 이들에게 전이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정서 전염이란 둘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정서가 수렴되는 현상으로, 다른 사람의 정서를 포착, 경험 또는 표현하는 경향을 의미한다(Hatfield, Cacioppo, & Rapson, 1994). Hatfield 등(1994)에 따르면, 정서적 전염은 두 단계, 즉 다른 사람의 정서를 반사적으로 모방하고, 모방된 행동을 정서적 경험이라고 느끼는 피드백 과정으로 구성된다. 정서 전염이 일어나려면 정서의 표현자와 관찰자가 있어야 하는데, 미디어는 다수의 관찰자에게 정서를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또한 정서는 단순히 모방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평가를 통해 조절

될 수 있으며(Parkinson, 2011), 뉴스를 통해 전달된 사건에 대한 의미 해석 및 추론 또한 정서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뉴스로 접한 세월호 생존자 및 (유)가족과 유사성에 대한 지각(Wayment, 2004)은 대규모 재난 이후의 정서적 고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심리학적 구성개념이다. 그런 사건이 “자신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자각은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동일시를 통해 죽음불안과 죄책감 같은 정서를 유발할 수 있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어린 학생들의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죽어가는 과정이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즉 죽음불안과 어른으로서 미안하다는 정서를 유발했다. 특히 후자는 생존자 죄책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죄책감이란 실제 또는 가상의 도덕적 위반을 포함하는 정서로, 자신이 행한 또는 행하지 않은 행동이 부정적 결과에 기여했다는 믿음이다(Tilghman-Osborne et al., 2010). 이러한 부정 정서에,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재난에 대한 위협이 부과되면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조차 정서적 고통을 경험할 수 있으며, 불안 완충 기제가 손상된 일부 취약한 사람들은 PTSD, 우울, 불안, 범불안장애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Norris, 2001).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월호 사건에 대한 뉴스 노출 시간이 길수록 간접 외상을 더 많이 경험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할 것이라 가정하고, 죽음불안, 외상 당시 및 외상 후 위기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재난 뉴스 노출의 영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를 통해 재난 뉴스노출이 대다수의 일반인들에게 단기적으로 또는 경미한 수준의 위기 및 스트레스 반

응을 초래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속기보다는 초기 뉴스노출의 중요성을 발견하였다. 미디어를 통한 간접 외상 노출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대규모 재난 발생 이후 정신병리를 예방하고 치유와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미디어의 재난 보도 방식에 대한 방향과 윤리적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니고 있는데, 이를 논하면서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가 편의 표집에 의존하여 자료를 수집하다보니, 연구 참가자들의 연령, 성별, 거주지역 등이 고른 분포를 보이지 못하였다. 특히, 전라도와 제주도 지역의 참가자가 포함되지 못했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에는 좀 더 체계적인 자료 수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는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평균 68.11일 경과한 시점에서 세월호 사건 당시와 1주일 이후의 뉴스 노출에 대해 회고적으로 평가하도록 한 횡단적 설계의 연구이다. 따라서 참가자의 기억에 의존해서 설문 작성되었고, 이러한 기억이 때로는 정확하지 못하고 편향될 수 있음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외상이나 재난의 영향은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데, 본 연구의 설계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이 감소, 유지 또는 악화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추후에는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된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전향적이고 종단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뉴스 노출의 영향을 조사한 대부분의

연구가 시각적 이미지를 포함한 TV 뉴스 노출을 다루었는데,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인터넷 뉴스에 가장 많이 노출되었고 TV 뉴스 시청이 그 다음 순이었다. 인터넷 뉴스의 경우, 강렬한 정서를 동반한 시각적 이미지와 동영상 포함 뉴스와 신문기사가 혼재되어 있어, 시각적 이미지의 영향만을 분리해서 연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추후에는 인터넷 뉴스를 동영상이나 글로 된 신문기사로 구분해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재난 뉴스 노출의 부정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고 미디어의 긍정적 영향에 대해 다루지 않았다. 대규모 재난이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Poulin, Silver, Gil-Rivas, Holman 및 McIntosh(2009)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911 이후, 친사회적 행동, 영성, 정치적 참여를 포함해서 예상치 못한 긍정적 변화를 지각했다고 보고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재난 뉴스 노출을 포함해서 간접 외상으로부터 초래된 긍정적인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재난 뉴스 보도의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재난시 미디어의 역할과 그 파급효과를 되돌아 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많은 이들이 부정적 정서와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재난 상황에서 선정적인 미디어의 보도는 이를 접하는 이들에게 불안과 두려움, 슬픔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유발할 수 있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일부 취약한 개인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은 재난 보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보도 지침을 만들고 준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가들은 미디어에 대한 음부즈맨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선정적인 보도

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취약한 개인이 간접 외상 노출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TV 시청 시간에 대한 안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재난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위해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미디어를 이용해서 1996년 이후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와 대화하라(Talk to Someone Who Can Help)” 또는 911 테러 이후에는 “회복에 이르는 길(The Road to Resilience)”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심리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재난과 같은 혼란 상황에서 미디어가 재난으로부터 회복과 치유를 돕는 대중 교육 및 캠페인을 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미디어오늘 (2015, 4, 16). 세월호 참사 1년, ‘기레기’언론의 끝을 보여줬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705>에서 인출

손승희 (2014). 사회적 사건에 의한 청소년의 간접외상 및 관련요인 연구: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1, 269-194.

은현정, 권태완, 이선미, 김태형, 최말래, 조수진 (2005).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지*, 44, 303-310.

이흥표, 이흥석, 고효진, 김교현 (2005). 다차원적 죽음불안의 타당화 및 비교문화적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 395-413.

주혜선, 안현의 (2008). 외상후 위기 체크리스트: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7, 235-257.

중앙일보 (2015, 4, 13). 세월호 1년-빅데이터 분석. <http://news.joins.com/article/17572840>

Ahern, J., Galea, S., Resnick, H., & Vlahov, D. (2004). Television images and probabl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fter September 11: The role of background characteristics, event exposures, and perievent panic.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2, 217-226.

Ahern, J., Galea, S., Resnick, H., Kilpatrick, D., Bucuvalas, M., Gold, J., & Vlahov, D. (2002). Television images and psychological symptoms after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s. *Psychiatry*, 65, 289-300.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Becker, E. (1973). *The denial of death*. New York: Free Press.

Bernstein, K. T., Ahern, J., Tracy, M., Boscarino, J. A., Vlahov, D., & Galea, S. (2007). Television watching and the risk of incident probabl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 prospective evaluation.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5, 41-47.

Breslau, N. (2009). The epidemiology of trauma, PTSD, and other posttrauma disorders. *Trauma, Violence, and Abuse*, 10(3), 198-210.

Chatard, A., Pyszczynski, T., Arndt, J., Selimbegović, L., Konan, P. N., & Van der

- Linden, M. (2012). Extent of trauma exposure and PTSD symptom severity as predictors of anxiety-buffer functioning. *Psychological Trauma: Theory, Practice, Research, and Policy*, 4, 47-55. doi:10.1037/a0021085
- Chung, M. C., Chung, C., & Easthope, Y. (2000). Traumatic stress and death anxiety among community residents exposed to an aircraft crash. *Death Studies*, 24, 689-704.
- Chung, M. C., Werrett, J., Easthope, Y., Farmer, S., & Chung, C. (2002). Traumatic stress and death anxiety among community residents exposed to a train crash.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43(2), 133-147.
- Cohn, M. A., Mehl, M. R., & Pennebaker, J. W. (2004). Linguistic markers of psychological change surrounding September 11, 2001. *Psychological Science*, 15, 687-93.
- DeRoma, V., Saylor, C., Swickert, R., Sinisi, C., Marable, T. B., & Vickery, P. (2003). College students' PTSD symptoms, coping, and perceived benefits following media exposure to 9/11. *Journal of College Student Psychotherapy*, 18, 49-64.
- Gershuny, B. S., Najavits, L. M., Wood, P. K., & Heppner, M. (2004). Relation between trauma and psychopathology: Mediating roles of dissociation and fears about death and control. *Journal of Trauma and Dissociation*, 3(3), 101-117.
- Hatfield, E., Cacioppo, J. T., & Rapson, R. L. (1994). *Emotional contagion*. New York and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rman, J. (1997). *Trauma and recovery*. New York: Basic Books.
- Hoelter, J. W. (1979). Multidimensional treatment of fear of deat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996-999.
- Holmes, E. A., Creswell, C., & O'Conner, T. G. (2007).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in London school children following September 11, 2001: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of peri-traumatic reactions and intrusive imagery.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38, 474-490.
- Kosloff, S., Solomon, S., Greenberg, J., Cohen, F., Gershuny, B., Routledge, C., & Pyszczynski, T. (2006). Fatal distraction: The impact of mortality salience on dissociative responses to 9/11 and subsequent anxiety sensitivity.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28, 349-356.
- Maxfield, M., John, S., & Pyszczynski, T. (2014). A terror management perspective on the role of death-related anxiety in psychological dysfunction. *The Humanistic Psychologist*, 42(1), 35-53.
- Neria, Y., & Sullivan, G. M. (2011). Understanding the mental health effects of indirect exposure to mass trauma through the media. *JAMA*, 306(12), 1374-1375.
- Neimeyer, R. (1998). Death anxiety: State of the art.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36, 97-120.
- Norman, G. (2010). Likert scales, levels of measurement and the "laws" of statistics. *Advances in Health Sciences Education*, 15, 625-632.
- North, C. S., & Pfefferbaum, B. (2002). Research on mental health effects of terrorism. *Journal*

-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88, 633-636.
- Parkinson, B. (2011). Interpersonal emotion transfer: Contagion and social appraisal.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5*(7), 428-439.
- Pfefferbaum, B., Pfefferbaum, R. L., North, C. S., & Neas, B. R. (2002). Does television viewing satisfy criteria for exposure i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sychiatry, 65*, 306-309.
- Poulin, M. J., Silver, R. C., Gil-Rivas, V., Holman, E. A., & McIntosh, D. N. (2009). Finding social benefits after a collective trauma: Perceiving societal changes and well-being following 9/11.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2*, 81-90.
- Pyszczynski, T., & Kesebir, P. (2011). Anxiety buffer disruption theory: A terror management account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xiety, Stress, & Coping, 24*, 3-26. doi: 10.1080/10615806.2010.517524
- Rimé, B., Páez, D., Basabe, N., & Martínez, M. (2010). Social sharing of emotion, post-traumatic growth, and emotional climate: Follow-up of Spanish citizen's response to the collective trauma of March 11th terrorist attacks in Madrid.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0*, 1029-104
- Silver, R. C., Holman, E. A., Andersen, J. P., Poulin, M., McIntosh, D. N., & Gil-Rivas, V. (2013). Mental- and physical-health effects of acute exposure to media images of the September 11, 2001, attacks and the Iraq war. *Psychological Science, 24*, 1623-1634.
- Tolin, & Foa, E. (2006). Sex differences in trauma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 quantitative review of 20 years of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32*, 959-992.
- Weiss, D. S., & Marmar, C. R. (1997). The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J. P. Wilson & T. M. Keane(Eds.), *Assessing psychological trauma and PTSD*(pp. 399-411). New York: Guilford Press.

논문 투고일 : 2015. 05. 22
1 차 심사일 : 2015. 06. 11
게재 확정일 : 2016. 07. 25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indirect trauma exposure through the news on the Sewol ferry disaster

Heung Pyo, Lee Yun Kyeung, Choi Jae Ho, Lee Hong Seock, Lee
Daegu Cyber University Keimyung University Hally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indirect trauma exposure through the disaster news. Participants($N=439$) completed some self-report questionnaires such as Posttraumatic Risk Checklist(PRC), Impact of Event Scale-Revised(IES-R), and Multidimensional Fear of Death Scale(MFODS) at 68.11(± 18.47) days after the Sewol ferry disaster. The data were analyzed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by AMOS 23.0 program. The results showed that fear of death and peri- and post-traumatic crisis factors mediated the association of news exposure immediately after disaster an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Findings in this study indicated that news exposure immediately after disaster influenced fear of death which led to the peri- and post-traumatic crisis, and these crisis factors increase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Finally,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indirect trauma, media exposure, PTSD, death anxiety, the Sewol ferry